

“기도영험담 왜 읽히나”

선악인과·가피력 방편신앙으로 관심 자력수행보다 기복불교 조장 우려도

“신심(信心)은 도의 근원 공덕의 어머니 모 든 선근(善根) 좋은 일 낳고 길러내니, 지혜와 복덕과 모든 공덕 이룩하고 반드시 불도를 성취하게 되느니라”(일타스님 <기도>중에서).
최근들어 불자들의 초발심(初發心)과 신심을 고양하는 각종 영험담을 수록한 책들이 다양하게 출간되면서 인기 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간과 동시에 책방 여시아문집계 베스트불서에 올라 최장기 베스트불서가 되고 있는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효림), 지난 7월 발간 이래 베스트불서 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도>의 후속편 <생활속의 기도법>(효림), 현대의 영가천도 영험담을 소개한 신촌열법사의 <업설로 배우는 지장경>(이바지)과 현대법사의 <극락세계 체험

담>(수선), 각종 영험실화를 새로 엮은 한정섭 법사의 <재미있는 설화>(이화문화) 등이 잇달아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도’ 신드롬 이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영험담을 소재로 한 불서들은 크게 선악인과설(善惡因果說)을 주요소재로 한 ‘전통 영험실화’, 참된 기도를 통한 일념삼매(一念三昧)의 효험을 보여주는 ‘기도성취 영험담’, 49재 등 각종 천도재를 통한 고혼(孤魂) 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보여주는 ‘영가천도 영험담’, 경전 독송과 영불삼매를 통한 불·보살의 가피력을 보여주는 ‘독송·영불 영험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같은 불서들은 불·보살의 감응과 영적인

체험 등을 실감있게 묘사함으로써 불교입문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신심을 고양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강조하는 선악인과설을 불교 입문자나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으로써 인심 순화를 통한 사회정화는 물론 포교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영험담은 자력(自力)수행보다는 타력(他力)신앙을 다룬 이야기가 많아 기복(祈福) 불교를 조장할 우려도 받고 있다.
영험담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초발심을 내게 하는 방편의 의미가 큰만큼 올바른 기도와 독경 및 영불, 천도재 등 각종 수행방편의 의미를 바르게 제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라즈니쉬 강의 '신심명'

근대 내지는 현대의 인도가 낳은 몇몇 성자의 소문에 접해도 나는 늘 외면해 왔다. 기껏해야 외도(外道)라니 하고 여긴 것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입수한 라즈니쉬의 <신심명>(信心名)은 단번에 나의 고루한 선입견을 뿌리뽑아 버리기에 족했다.
나는 놀라움에 가득찬 눈으로 읽어 내려갔고,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폭탄처럼 작열하여 내 마음의 바다에 법열(法悅)의 물기둥을 일으켰다. 공감하는 글귀마다 밑줄을 긋다보니 은 책이 언더리언 투성이가 되기도 했다.
물론 <신심명>은 라즈니쉬의 저서가 아니라 중국선종의 3조(祖) 승찬대사의 <신심명>이 바로 그것이어서, 그는 공감한 나머지 그 내용에 관해 제자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46구(句)의 긴 계승으로 된 <신심명>을 승찬대사가 3조째 달마 해가로부터 이어받은 그것, 나아



이원섭 (시인)

'思考서 차별病 생긴다' 해설 "소망갖지 말고 버릴 때 광명"

가서는 서천28조(西天二十八祖)를 거슬러 올라가 열화시종(拈華示眾)의 부처님과도 직결되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종지를 밝힌 것이니 이런 것들을 온통 내던져질 때에 광명은 온다고 충고한다. 사무어변(辭無碍辯)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다.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그대로 광명이 된다. 그는 분별이전-각종교가 생겨나기 이전의 원점에서 서 있다. 그러기에 승찬대사의 자기(知己)요, 누구보다도 부처님을 존경하기도 했던 것이니, 이런이의 말에서 광명이 난다고 무엇이 이상하라. 내가 읽은 것은 일본의 하나조노대학(花園大學)의 선문화연구소 발간이다. 경지가 비속하기에 승찬대사에 대해 하는 말이 자기 말을 말함이고, 자기를 말함이 승찬대사에 대해 말함이 되고 있다.

“해외포교 느낀점 진솔표현”

지목스님 산문집 '봉주르, 길상입니다' 펴내

“파리 길상사(吉祥寺) 주위 길에도 마치 인연의 터인양 보리수(Les Tilles)거리, 소림(Petit Bois)동이란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길상사의 창건이름이 길상왕결(吉祥祥濤)로 자리잡아 가고, 내 자신에게는 길상초(부처님이 성도할 때 깔고 앉았던 풀)를 깔고 앉는 큰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목스님의 유럽 견문기 <봉주르, 길상입니다>(우리출판사)는 스님의 다섯번째 산문집으로서 법정스님이 1993년 창건한 승광사 파리원길상사에서 법사로 지내며 보고 느낀 서구사회의 단면을 담담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유럽 곳곳에 정착한 한국 교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한편 해외 포교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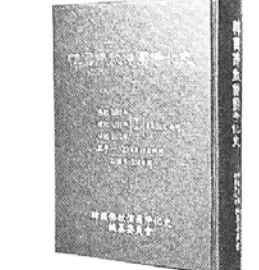


있어 실제적인 포교지침서 역할도 한다.
일조량이 부족해 어린이에게 영양제를 먹여 일조량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프랑스 등, 유럽은 우리에게 아직 낯설은 곳이다. 지목스님은 이곳 교민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유학생을 위한 카운슬링과 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래서 손수 컴퓨터를 두들겨 매일 회보를 꾸며 유학생들에게 보내는 일을 즐겨하고 있다. 부록에 실린 신도들의 진솔한 체험기가 해외 포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꽃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종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5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6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7	법화사상	현담사리	우 래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응	웅 화
9	신도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10	불교심리학	부네 요한스	시 공 사

구입문의: (02)737-0695



“불교정화운동 日誌로 본다”

도광스님 '한국불교승단정화사'...1954년부터 정리

적인 사료로 정리되지 못한 정화운동을 일지(日誌)형식으로 기록한 <한국불교승단정화사>(편찬위원회)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지난 9월30일 입적한 도광스님(경주 성주암). 정화운동 당시 선학원 서기로 활약했던 저자가 1954년 8월24일부터 55년 5월16일까지 3백58일 동안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사진



들 △사찰정화 대책위 회의록 △이불화 거사의 '조계종 원류' 전문 △불교관련 소송사건 참고자료집 등을 수록했다.
정화운동에 참여했던 율하스님(조계종 종정)은 이책의 머리말에서 “남자들은 이 책을 상세히 읽어보고 정화정신에 입각해 세운 조계종을 부흥수위, 대책위원, 종회의원 명단 △비구 대처 양측간 화기기록

동국역경원 '...대비바사론' 첫 완역

동국역경원(원장 일운)은 최근 한글대장경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7, 8권을 출간함으로써 아비달마(경·율·론 삼장 가운데 論藏) 문헌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서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전 2백권(현장 한역 본)을 국내 최초로 완역했다. 역자는 송성수

출판소식

추사 김정희 '완당전집' 첫 국역

당대 고승들과 깊은 친교를 가졌던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시문집 <완당전집(完堂全集)>(전 3권·솔출판사)이 처음으로 국역·완간됐다.
<완당전집>은 문집 <완당집>, 시집 <담원재시고(潭淵齋詩稿)>, 편지글 <완당척독

새로 나온 책...

- ▲ 웃으며 가는 저승길(이돈문 지음)=저자 이돈문법사(해동불교대학 교수)가 재미있는 이야기와 비유, 현실에서 저자가 체험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해 난해한 불교를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게 한다. 또한 탐욕이 아닌 베품만이 진정한 행복임을 강조한다. (법사출판 7천원)
- ▲ 꿈에서 나는 이야기들이 들었다(성래경 지음)=불교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불교적인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독특한 에세이. 저자인 이화여대 성래경교수(통계학)가 한국을 수호하는 신령(神靈)으로부터 들은 하룻밤의 꿈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공부와 수행, 불교와 한의학 등을 소개했다. (중명 1만5천원)

- ▲ '미망속의 길찾기'이며, 남루한 삶과 세상에 대한 연민의 기록이다. (학고재 9천5백원)
- ▲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죽음을 앞에서(복거일 지음)=장편소설 <辟路를 찾아서> (역사속의 나그네)의 작가 복거일씨의 산문집. 청와대 안의 찬송가를 다룬 '정치와 종교의 분리', 20세기 현대문명을 꼬집는 '방랑의 시대', 40대 가장의 자식 사랑을 그린 '아버지의 독백'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냈다. (문학과지성사 6천원)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8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의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법에도 불처법도 기도를 통하여 / IV. 욕망을 구한 입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의 능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의 운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礙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김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생기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출판**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